



1	웹 마스터가 되기 위한 조건	1
2	웹 마스터의 자질	1
3	웹 마스터가 알아야 할것	
	1)에디터	1
	2)그래픽	3
	3)프로그램	4
	4)기타 어플리케이션	4
	5)추천 사이트	5
4	요점 정리	5

1. 웹 마스터가 되기 위한 조건

- 웹 마스터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없다 그러나 총알은 준비해야 한다.
 - 컴퓨터와 일심동체
 - 새로운 것에 대해 항상 궁금하다.
 - 프로의식-난 잘났어!
 - 좋아하는 것은 컴퓨터 잡지 보기, 서핑은 취미, 심심할 땐 디자인 하기
 - 하루 10시간 앉아 있어도 끄떡없는 체력!
 - 클라이언트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언어의 연금술사~*
 - 그 밖에 팀원과의 조화 능력, 시간관리, 독서하기 등등

2. 웹 마스터의 자질

- 기본 마인드
운영 사이트의 목적에 부합되는 마인드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능력
- 사이트 기획 능력
운영 사이트의 콘텐츠 확보 또는 접속자 증대 등을 위한 기획 능력
- 인터넷 활용 능력
관리 홈페이지 분석 및 타 사이트 검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취득 능력
- 서버 운영 능력
안정된 서비스를 위한 서버 관리 능력 (전산 부서, 전문 회사 등에 위탁 가능)
- 시간 관리 능력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Grand Open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는 일정 수행 능력
- 의견 조율 능력
팀원과의 커뮤니케이션,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 내가 니꺼야?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네티즌을 사로 잡을 수 있는 능력

3. 웹 마스터가 알아야 할 것

1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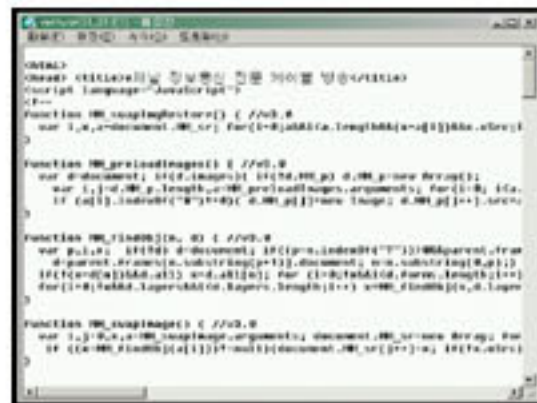
- 과거 HTML을 손으로 하드 코딩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젠 에디터가 있다.
 - 웹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
 - 과거 메모장이 최고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메모장을 최고의 에디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 에디터란?

- 말 그대로 풀이 하면 편집기?
- 편집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 다양한 기능 제공
- 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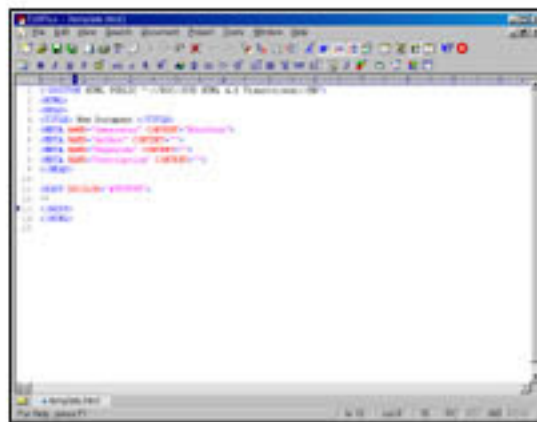
■ 텍스트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도 종류가 많다. 선택 여부는 모두 써보고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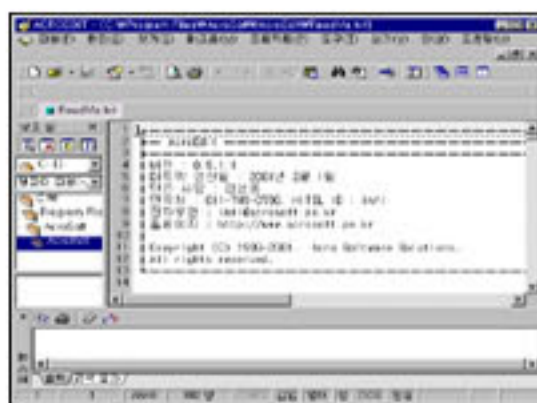
NoteTab Pro V4.83

다양한 편집 기능과 빠른 속도, 그리고 깔끔한 툴바를 가지고 있는 메모장 대체용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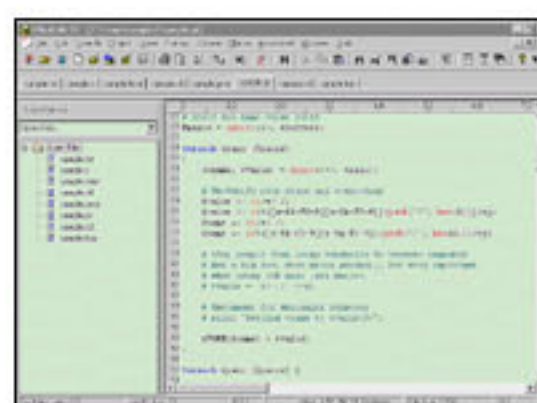
에디트플러스 (EditPlus)

EditPlus는 HTML 편집시 태그를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프로그래밍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편리한 에디터. 한 번에 여러 페이지 수정 등 좋은 기능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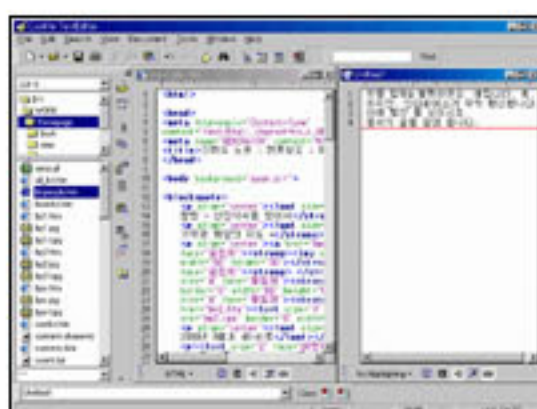
ACROEDIT

한 번에 여러 개의 문서를 열어놓고 작업할 수 있고, 프로젝트 단위로 문서를 관리할 수 있다, 다양한 편집 기능을 갖고 있는 문서 편집기.



UltraEdit

대용량 파일 지원,영어 스펠링 검사, HTML 문서의 태그 표시 등의 기능. 단점은 한글 지원이 완벽하지 않다.



Castillo TextEditor

역시 다른 텍스트 에디터와 마찬가지로 여러 파일을 열고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 특징은 문서 끝에 빨간줄을 표시해서 끝을 알려주고 실행 명령어가 아이콘으로 처리된 점이 특이하다.

■ 매크로미디어 (www.macromedia.com)

-드림위버

■ 나모인터랙티브 (www.namo.co.kr)

-나모 웹 에디터

■ Allaire (www.allaire.com)

-HomeSite

■ CoffeeCup HTML Editor (www.coffeecup.com)

■ HotDog Professional (www.sausage.com)

에디터는 많이 쓸 필요 없다. 자기 손에 맞는 것을 찾아 쓰면 된다.

2 디자인

- 웹 디자인 툴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2D, 3D, Animation 등 각각에도 많은 툴들이 있다. 이러한 툴을 다 알고 쓸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특징은 알고 있어야 디자이너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흔히 웹 디자이너의 경우 2D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끼로 사과를 깎아서 먹으나 과도로 사과를 깎아서 먹으나 깎을 수만 있다면 상관 없다. 오히려 도끼로 과도보다 더 잘 깎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과도라는 것을 모르고 도끼만 써온 결과이고 과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최근 웹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툴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 툴들도 웹에 관련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 가끔은 디자이너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해도 된다.

- 웹에 대해서 잘 모르는 클라이언트와 일을 할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 때론 강사가 되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웹 디자인에 쓰는 이미지가 비트맵인지 벡터인지, Gif Animation인지 Flash인지 등 보고 들은건 많지만 이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길 바란다.
<참고 사이트: 용어 사전 - www.terms.co.kr>

-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디자이너와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된다. 최소한 이런 것이 구현 가능한지는 알고 있어야 디자이너와 일을 할 것이 아닌가?
<참고 사이트: www.jungl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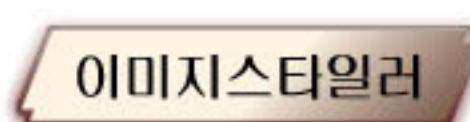
■ Tool

- 웹 디자인과 관련된 툴은 정말 많다.
기본적으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코렐드로우 등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알아 두면 쓸 만한 툴들이 많이 있다. 그 많은 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설치해서 써보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 강의 과정이 기획자에게 중점을 둔다면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툴만 간단히 설명하겠다. 시간 나면 꼭 설치해서 써보길 바란다.
- Photoshop (www.adobe.co.kr) : 비트맵 툴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 Illustrator (www.adobe.co.kr) : 벡터 툴에서 역시 많이 쓰인다.
- Fireworks (www.macromedia.com) : 처음부터 웹 디자인 용으로 나온 툴이다.
- Freehand (www.macromedia.com) : 매크로미디어사에서 나온 벡터 툴. 주로 플래시와 같이 쓴다.
- Corel Draw (www.corel.com) : 벡터툴로서 역시 많이 쓰인다.
- Paint Shop Pro (www.jasc.com) : 비트맵 툴로 많이 쓰인다.
- ImageStyler (www.adobe.co.kr) : 웹 전용 툴. 기본은 비트맵 형식이나 벡터의 오브젝트 개념을 인용했다.
버전업이 오랫동안 안되고 있다는게 단점.
- HEADLINE STUDIO (www.metacreations.com) : 타이틀 이미지를 다양하고 쉽게 만들 수 있다.

- Cool3D (www.ulead.com) : 3차원 타이틀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
- XARA3D (www.xara.com) : Cool3D와 같이 3차원 텍스트 저작 도구.
- Webstyle (www.xara.com) : 버튼과 타이틀을 다양하고 쉽게 만들 수 있다.



웹 스타일



이미지 스타일러



Xara3d



Cool3d

3 프로그램

■ 웹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두 말하면 잔소리!!

웹 서버와 개발 환경에 따라 개발 언어 선택도 달라진다. 일반 프로그래머도 자기가 주로 쓰는 언어 외에는 잘 모른다. 하물며 기획자가 프로그램까지 다 알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언어가 효율적이며 향후 어떤 프로그래밍이 유망한지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 웹 사이트 개발 언어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 개념을 충실히 파악하여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팀원과 같이 상의 하여 선택하면 된다. 클라이언트와의 회의에서도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개발 환경이다.

■ 개발 언어

- PHP (원래 Personal Home Page에서 유래됨)
PHP는 동적인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HTML에 삽입되는 스크립트 언어로서 서버에서 실행된다. PHP 4.0 이 가장 최신판이며, 이미 7만 개 이상 웹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HTML 문서에 삽입되는 PHP 스크립트(Perl이나 C의 문법과 비슷하다)는 특별한 PHP 태그 속에 둘러싸이게 된다.
- ASP(Active Server Page)
ASP는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작은 내장 프로그램)를 담은 HTML 페이지로 사용자에게 보내지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웹 서버에서 처리된다.
- JSP (Java Server Page)
JSP[제이 에스 피]는 서블릿의 사용을 통해 웹 페이지의 내용이나 모양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인터넷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HTML의 한계를 극복하고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HTML에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tag)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이해하면 쉽다.
- WML (Wireless Markup Language)
이전에는 HDML이라고 불렸었던 WML은, 무선 접속을 통하여 셀룰러폰이나 PDA 등에 웹 페이지의 텍스트 부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이다.

4 기타 어플리케이션

■ 웹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가?

예를 들어보자. 우선 기획 단계에서는 주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한다. 일정 계획서나 견적서 등은 엑셀로 보통 작업을 한다. 기획이 끝나면 역시 스토리보드를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작업에 들어간다. 에디터를 띄우고 코딩을 하고 디자이너는 몇 개의 그래픽 프로그램을 띄우고 작업을 한다.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 작업이 끝난 부분은 FTP를 이용하여 웹 서버에 전송한다. 브라우저로 테스트를 한다.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경우 플래시 작업도 들어간다. 플래시에 사운드가 들어갈 경우 사운드도 편집한다. 동영상 삽입하기 위해 인코더로 작업을 한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워드로 가이드 라인 문서를 만들어 제공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로그 분석 툴로 사이트 로그 분석을 해본다.

- 기본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이것저것 합치면 정말 많다. 당신은 엔지니어???

5 추천 사이트

- 툴은 항상 업그레이드되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항상 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 www.artmdia.org
 - www.myfolder.net
 - www.tucows.com
 - www.bomul.com
- 이바닥의 최신 용어는 왜 이리 많은지? 그것도 모두 약어이다.
 - www.terms.co.kr
 - www.whatis.com
- 하드웨어는 기본(?)
 - 하드웨어 초이스 (www.hwchoice.com)
 - K-Bench (www.kbench.com)
- 트렌드를 쫓아라~
 - i-비즈넷 (www.i-biznet.com)
 - ZD넷코리아 (www.zdnet.co.kr)
 - IT조선 (www.itchosun.com)
 - 아이비즈투데이닷컴 (www.ibiztoday.com/kor)
 - 아이뉴스24 (www.inews24.com)
 - 코리아CNET (korea.cnet.com)
 - 디지털타임스 (www.dt.co.kr)
 - 코리아인터넷닷컴 (korea.internet.com)

4. 요점 정리

- 웹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공부와 능력이 필요하다.
-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 에디터, 그래픽 관련 툴, 프로그래밍 언어 등이다.
- 여러 웹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뉴스 등)